

## □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4 공예트렌드페어
- 일시 : 2014년 12월 18일 ~ 12월 21일 (4일간)
- 장소 : 서울 Coex A홀
- 주제 : 공예온도 36.5℃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후원 : 우리은행, 신세계, 롯데칠성, 두성종이
- 협찬 : 한국관광공사, (사)한국공예가협회, (사)한국조형디자인협회,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한국문화재단

## □ 행사 구성

구분	내용
기획관	- 주제관 『공예온도 36.5℃』 - KCDF사업홍보관 : 기관홍보, 사업결과물 홍보 - 해외초청관 : 영국, 프랑스, 대만 3개국 공예관련기관 초청전시
창작공방관	- 기획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예작가 100팀의 크리에이티브 전시 공간
산업관 및 대학관	- 공예작가, 업체, 갤러리, 지자체, 대학, 리빙브랜드, 미디어 등 유료참가자들의 전시마케팅 공간(120팀 참여)
갤러리관	- 국내외 갤러리 소속작가 공예품 전시 (국내 15개 갤러리, 해외 4개 갤러리)
부대행사	- 국제세미나 : 오늘날 공예의 이슈 제시 및 정보교환을 위한 전문학술행사 - 현장프로그램: 체험워크숍, 강연 등 오감만족 Zone - 바이어초청행사 : 공예분야 바이어를 초청하여 공예품으로 구성된 기획선물세트 판촉행사 진행 - 참여작가의밤: 올해의작가상 시상식 및 참여작가 네트워킹 - 손길프로젝트 : 공예미술관련 갤러리를 손길 스팟으로 선정(15곳), 갤러리와 페어 참여작가 매칭 전시 추진 및 페어 프로모션 진행

□ 주제관

- 주제: 공예온도 36.5℃
- 전시큐레이팅: 손문수
- 공간디렉팅: 임태희
- 기획의도

- 흙이 불 속에서 자기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온도, 금속이나 유리가 녹는 과정의 온도, 한지의 재료인 닥나무를 삶는 온도... 저마다 온도계의 수치는 다르다. 그렇다면, 장고의 시간과 땀으로 완성된 공예의 온도는 몇 도일까?

2014 공예트렌드페어의 주제, ‘공예온도 36.5’ 는 공예가와 사용자의 ‘공감온도’ 이다. “공예가가 만들고 사용자가 완성하는 공예” 이든바 ‘공예’ 는 매일 만나고, 사용하고, 경험하는 ‘살아 있는 일상’ 이 되어야 한다. ‘공감온도’ 는 공예가 폭 넓게 일상화되기 위한 가장 일차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호적 교감’ 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제관은 동시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공예의 가치를 보다 많은 대중들과 이야기하고자 한다.

- 참여작가(총 39명)

- 권원덕, 권진희, 김광우, 김대건, 김수연, 김유라, 김윤선, 김정석, 김준용, 김지민, 김희종, 류연희, 서정화, 석문진, 심진아, 안시성, 윤정희, 이경동, 이동하, 이민수, 이세용, 이재준, 이종춘, 이춘복, 이화윤, 장연순, 장현숙, 전성근, 전용일, 조영선, 최재일, 최정선, 현지연, 안 반호이 An Van Hoey, 코타 아리나가 Kota alinaka, 리암 플린 Liam Flynn, 마크 리코 Marc Ricourt, 구마노 키요타카 Kumano Kiyotaka, 이바나 쉬람코바 Ivana Šrámková

□ 초청관

해외초청관 1	영국 공예청(Craft Council)
---------	-----------------------

1971년 설립된 영국공예청은 연국의 현대공예를 국내외적으로 진흥할 목적으로 1982년 왕실헌장이 부여된 공예전담기구로서, 제작지원, 전시회 개발, 유통지원, 대중 홍보, 총 4가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공예트렌드페어에서는 ‘RawCraft(가공치 않은 공예)’ 라는 주제로 영국의 트렌드를 이끄는 4명의 공예가가 제작한 가구를 전시한다.

## 해외초청관 2

## 아틀리에 아트 프랑스(Ateliers d' Art de France)

아틀리에 아트 프랑스(Ateliers d' Art de France)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공예 진흥기관으로, 1868년에 설립되어 현재 6,000명이 넘는 공예작가와 공방이 소속되어 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한-불 공예 교류 협력 파트너이며, 2010년부터 트렌드페어를 통해 프랑스 공예를 국내에 알리고 있다.

이번 2014 공예트렌드페어에서는 프랑스 특유의 장신구를 선보인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14명의 작가들의 작품으로,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

## 해외초청관 3

## 중화민국전국상업총회 (Th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of the Republic of China)

중화민국전국상업총회는 중화민국(대만)의 상업조직법에 의하여 1946년 설립된 핵심적인 국제 상업 기관으로서, 적극적인 국제 교류로 대만의 문화 및 산업의 보호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2014 공예트렌드페어에서 선보일 전시는 <오리지널 타이완>전의 초청 전시로서, 6개의 문화상품 브랜드에서 나오는 목재, 대리석, 콘크리트, 섬유, 도자 등 5가지의 소재로 해석된 문화상품을 소개한다. 이 전시를 통해서 대만이 풍부한 천연자원과 경제적 저력을 기반으로 어떻게 전통산업 기술을 현대의 수요에 맞게 변화시켜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상품을 만들어내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 KCDF사업홍보관

KCDF 갤러리숍 판매상품을 비롯하여 공예디자인 스타상품, 우수공예지정상품, 지역연계개발 공예상품, 신(新)한복 개발 프로젝트 결과물, 한지상품개발 경연대회 결과물, 공예소재DB, 대학생 대상 공예디자인 교육 수상작 등이 전시된다.

특히 지난 4월 밀라노 트리엔날레 디자인 뮤지엄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한국전통공예가 9월 런던디자인페스티벌, 10월 중국 항저우를 거쳐 드디어 국내에서 선보인다. 이 전시는 도자, 한지, 섬유, 금속, 나전 등 우리 전통공예의 5가지 천연소재가 주인공이다. 한국의 전통공예 장인들은 각각 자신의 작품을 통해 우리 소재가 갖는 물성의 깊이와 철학을 보여준다.

□ **국제세미나 개요**

- 일시: 2014년 12월 20일(토) 14~18시
- 장소: 행사장 내 토크스튜디오
- 목적: 공예 학술교류 증진 및 전문가 교류
- 참석자: 약 60명 예상
- 세부일정

시간	소요	구성	프로그램(안)	발제자
13:00-14:00	60분	참가자 등록		
14:00-14:10	10분	개회/인사말		인사말: 최정철 원장
14:10-14:30	20분	1부	기조발제① 전시에서 페어로 - 수직적인 위계에서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최범 Choi Bum - 공예디자인평론가
14:30-14:50	20분		발제② 영국 공예의 창조경제	로지 그린리스 Rosy Greenlees - 영국공예청 청장
14:50-15:10	20분		발제③ 대만공예의 현황 및 사회적 가치	호우종 Hu Yu-tsung - 대만 NDD 대표
15:10-15:30	20분		발제④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하는 전시디자인	마테오 오리고니 Matteo Orioni - 오리고니 스테이너 건축 수석 디자 이너
15:30-15:50	20분	휴식		
15:50-16:10	20분	2부	발제⑤ 영국 공예의 변화하는 정체성	사라 마이어스코 Sarah Myerscough - 영국 사라 마이어스코 갤러리 대표
16:10-16:30	20분		발제⑥ 나의 작품세계	네이단 용 Nathan Yong - 싱가포르 공예작가
16:30-16:50	20분		발제⑦ 오브젝트 에코시스템	이석우 Lee Sukwoo - SWBK / Matter & Matter 대표, 산업디자이너
16:50-17:10	20분		발제⑧ 갤러리의 해외진출 사례	야마키 다케오 Takeo Yamaki - 야마키 아트갤러리 대표
17:10-17:50	40분	질의응답		
17:50-18:00	10분	폐회		

□ 국제세미나 주요 발제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조발제자 : 최범 (Choi Bum)</li> <li>○ 주 제 : 전시에서 페어로 : 수직적인 위계에서 수평적인 네트워크</li> <li>○ 발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근대공예의 위계구조와 전시라는 장치</li> <li>- 최근 공예 페어의 붐은 한국근대공예의 모순에 대해 극복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함</li> <li>- 근대공예의 수직적인 위계구조에서 수평적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움직임 논의</li> </ul> </li> <li>○ 주요 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예-디자인평론가</li> <li>-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및 동대학원 미학과 졸업</li> <li>- &lt;월간디자인&gt; 편집장 역임</li> <li>- 여러 대학에서 공예와 디자인 이론을 강의하는 한편 출판, 전시, 공공 부문에서 활동</li> <li>- 현재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PaTI) 디자인인문연구소 소장</li> <li>- &lt;한국 디자인을 보는 눈&gt;, &lt;한국 디자인 어디로 가는가&gt;, &lt;한국 디자인 신화를 넘어서&gt;, &lt;공예문화 비평&gt; 집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제자 : 사라 마이어스코 (Sarah Myerscough)</li> <li>○ 주 제 : 영국 공예의 변화하는 정체성</li> <li>○ 발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약 10년 동안 예술, 건축, 디자인, 공예 등 추이 조명</li> <li>- 순수예술(“fine art”)의 분야로 새로운 위치를 다지는 공예</li> <li>- 이전과 다른 기준에 의해 형성되고 예술의 인식의 변화</li> </ul> </li> <li>○ 주요 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라 마이어스코 갤러리 설립(1999)</li> <li>- 세계 주요 뮤지엄들의 공예 작가들과 디자이너들을 전시, 홍보</li> <li>- 컨템포러리 공예의 뛰어난 기술과 예술적 융합을 강조</li> <li>- 영국 내 신진작가를 발굴, 기성작가들의 국제적 발전을 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제자 : 네이단 용 (Nathan Yong)</li> <li>○ 주 제 : 나의 작품세계</li> <li>○ 발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의 커리어와 작업세계의 변천사</li> <li>- 산업, 인테리어, 건축 디자인 분야의 경험에 빚대어 아시아의 디자인을 조명</li> <li>- 작업 방식: 불필요한 디테일 대신 자세한 연구와 기술을 통해 제품의 본질을 포착하여, 사용자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스타일과 기능을 제작</li> </ul> </li> <li>○ 주요 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r Division 샵 오픈(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역사상 첫 가구 디자인 및 리테일 컨설팅 회사</li> </ul> </li> <li>- 레드 닷 컨셉 디자인 상 수상(2006,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량생산 관 컨셉 디자인과 휴대용 실내 히터 아이디어</li> </ul> </li> <li>- 올해의 디자이너 상 수상(싱가폴 대통령 디자인상, 2008)</li> <li>- Core 77 - Green Design Award 수상</li> <li>- 싱가포르 대통령 디자인상 초청 심사위원(2011, 2012)</li> <li>- Design within Reach (미국), Ligne Roset (프랑스), Living Divani (이탈리아) 등 국제 브랜드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참여</li> <li>- BEING: The Thoughts and Work of Nathan Yong 저자(2006)</li> </ul> </li> </ul>

